

이노폴리스 공공기술펀드 출범 설명회 가져

유희숙 도 경제국장, “전북특구 우수기업이 투자 지원 기업 성장·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18일 대덕테크비즈센터(TBC) 콜라보홀에서 ‘이노폴리스 공공기술기반펀드 출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노폴리스 공공기술기반펀드는 공공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의 성장지원을 통해, 공공기술사업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결성됐다.

공공기술기반펀드는 연구개발특구 2차 펀드 회수금 150억과 국민연금 200억, 전북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 민간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총 501억원의 규모로 조성됐다.

연구개발특구 내 기술금융 공급의 부족함을 해결하고, 공공기술사업화

추진 기업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주인공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기관이 협력한 모범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펀드의 운용사인 ‘이노폴리스파트너스’는 펀드의 조성취지에 맞춰 공공기술사업화를 시현했거나 예정인 중소·벤처기업으로서 공공기술을 이전 또는 출자 받은 기업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투자계획안을 발표했다.

공공기술기반펀드의 주 투자대상은 연구소기업과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주로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연구성과를 사업화한 기업이 대상이다.

이에 주목적투자 대상에 펀드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또한 약정총액의 50%이상을 대덕·

부산·대구·광주·전북 등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에 투자한다.

출자자로 참여하는 지자체의 권역 내 기업에도 각 지자체 출자금의 2배 이상을 투자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북특구 연구소기업인 (주)넥서스비(연구소기업 257호) 등을 포함해 공공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3곳이 선전패 투자 이행사도 진행됐다.

(주)넥서스비는 한양대학교 기술을 출자받아 전북특구에 설립한 연구소기업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진공증착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플렉서블 OLED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양산성 확보 후 국내 및 중국시장으로 사업확장을 기대하고 있

다.

(주)넥서스비 최학영 대표는 “연구소기업 제도를 통해 기업설립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조기안착 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투자IR을 통해 자금조달이 된다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OLED시장에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시장을 점유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공공기술기반펀드 조성에 따라 도내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연구소기업, 전북특구 및 전북지역 우수 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ICT 기반 농업연구 기술 협력

농진청-정보통신진흥원 기술교류 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은 18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4차 산업혁명 ICT 기반 농업연구 및 기술개발을 골자로 하는 연구, 기술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ICT 관련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협력분야는 농업 ICT 융복합 연구, 농업 ICT 상용화, 한국형 농업 ICT의 시장개척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으로 농축산업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양기관은 인적 및 시설·장비·기자재 등 상호 보유 인프리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협약의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위해 ‘4차 산업혁명 ICT 기반 농업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도출’이란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도 함께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ICT 기반 농업기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상호 정보 교류 확대 및 시범사업 협력, 국내 농업 ICT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종록 원장은 “빅데이터, IC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의 공동 연구 및 사업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정광훈 청장은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팜 기술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작물과 가축의 생육상태와 재배·사육환경을 조절하고 원격 제어까지 할 수 있는 첨단기술로서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기술”이라며, “앞으로 기술개발에 상생 협력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구현 할터

업무보고회 겸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현장 간담회

전북농협은 18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과 지역농축협 조합장, 강태호 전북농협 본부장, 최용구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시군지부장, 계열사 지사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전북농협 업무보고회를 겸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현장농담(農談)을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강태호 본부장의 전북농협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김병원 회장의 당부의 말, 조합장과의 대화,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농협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농가소득 연 5,000만원 시대를 열어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구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가지 핵심과제와 21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산지유통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유통생산조직을 300개로 확대하고, 농산물 수출 3,000만톤 시대 개척 등 농산물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자재 계통공급과 농기계은행

사업 확대, 축산업 생산기반 강화 및 유통활성화로 농업 생산비를 절감해 농가소득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사업 등 신사업 추진과 지자체협력사업을 확대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농외소득 증대, 지도사업을 활성화하고 농번기 신속한 영농인력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협동조합 이념강화 및 전과, 미래세대에 대한 농업가치 인식제고 협동조합 이념을 강화하고 농축협 운영발전을 도모하며, 순이익목표 달성을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 범

농협 상생 경영 및 시너지 활성화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강태호 본부장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사업과 함께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농작업대행과 무인방제를 확대해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농교류 확대를 통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고 맞춤형 문화,복지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구현을 위해 전북농협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기업 모집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3년 이상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3년 이상 7년 이내의 어려운 시기(Death valley)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분야별 사업화를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분야, 중견기업 연계 성장 지원분야, 연구원 창업 분야, 후속연계 지원분야로 나눠서 5월 11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참여기업은

기업의 특성에 맞게 1개 분야에 지원이 가능하며 후속연계 지원분야는 별도로 업체를 선정하며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R&D 및 경영전략, 사후관리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와 마케팅 전략, 해외 타겟팅, 모의 IR, 클라우드 펀딩에 대한 교육이 지원되고, 온라인 유통 채널, 해외 수출사업화 지원, 투자 유치와 관련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돼 창업 기업의 제품 판로 개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안재용 기자

전북중기청, 청소년 비즈쿨 지정서 수여식 개최

전북중기청은 평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 24개교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은 2002년 처음 시작해 청소년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비즈쿨 운영학교 지원을 확대해 왔다.

올해 참여하는 24개교는 비즈쿨 선정평가에 따라 도전·도약·선도비즈쿨로 구분해 도전비즈쿨은 삼례동초등학교 등 13개교, 도약비즈쿨은 남원제일고등학교 등 10개교, 선도비즈쿨은 전북기계공고 1개교이다.

도전비즈쿨 600만원, 도약비즈쿨 최대 1,600만원, 선도비즈쿨은 체험특화형 비즈쿨지원금 포함해 8,750만원까지 지원하며, 앞으로도 열정·도전정신 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참여학교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 비즈쿨 사업의 지원내용은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 특강 및 창업동아리 운영 등이 있으며 다양한 비즈쿨 캠프 등을 개최해 학생들이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여경협, 청소년 창업플랫폼 ‘창업의 신’ 프로젝트 진행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도내 청소년들의 창업 메카니즘 구축을 위해 특화된 아이디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도록 청소년 창업플랫폼 창업의 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전북도,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창업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교육 20시간, 멘토링 10시간으로 구성했다.

또한 밀착멘토링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회계, 경영일반, 창업절차, 심진지검하 등 실제 창업을 위한 사업으로써, 최종창업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4팀은 5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초기사업비를 지원한다.

박영자 회장은 “전북지역 대학진학은 높으나, 취업률은 저조한 상태이

며, 고교졸업자 중 취업 및 진학을 하지 못하는 무직자비율도 전국 7번째로 높다”며 “취업이 힘든 요즘 시대에 창업에 관심있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창업은 학력과 스펙을 초월해 자신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창업을 희망하는 도내청소년의 많은 참가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실질적인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이므로, 각종경진대회 입상 또는 특허아이템이 있으나 사업자를 내지 않은 경우 우대해 심사하며, 5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제출서류양식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홈페이지(<http://jeonbuk.biz.or.kr>)를 참조바라라,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063-272-9973)로 문의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